

#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

## 2019년 2분기 뉴스레터

### 01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 추이



### 2분기 외식산업경기지수 소폭 하락한 6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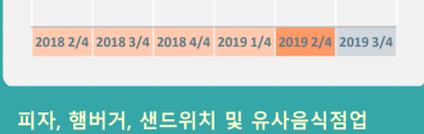
2019년 2분기 외식산업경기지수는 지난 1분기 결과(65.97) 대비 0.89p 하락한 65.08로 나타나 지난분기 소폭 반등한 지수가 다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전반적인 경기침체 현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및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중요시 하는 트렌드가 전반적인 외식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경기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됨  
2019년 3분기 외식산업의 경기를 전망하는 미래경기전망지수는 68.66으로 현재경기지수 대비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평소 미래경기전망지수가 현재 지수 대비 +5p내외의 높은 것을 감안할 때에 향후 외식산업경기지수는 약보합세가 지속 될 것으로 보임

\* 미래전망지수(2019년 3분기)는 보통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로 인해 현재경기지수보다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 02 주요 업종별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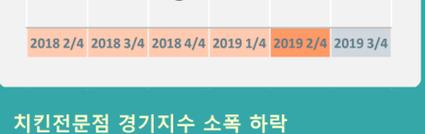
#### 한식음식점 경기지수 다시 소폭 하락

지난분기 소폭 상승하였던 한식음식점업의 경기지수는 이번분기 다시 하락한 63.66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임



#### 중식음식점 평분기 수준의 보합세 이어가

지난분기 평분기 수준으로 회복하였던 중식음식점업의 경기지수는 2분기 66.93으로 보합세를 이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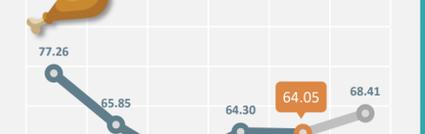
####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음식점 단계적 하락세 보여

지난분기 소폭 상승세를 보이던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음식점업의 경기지수는 3.53p 하락한 70.54로 나타나 2018년 3분기 이후 단계적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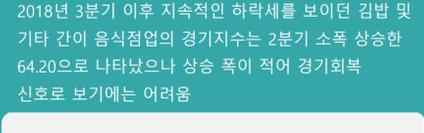
#### 치킨전문점 경기지수 소폭 하락

최악의 연말을 보내고 배달업 경쟁으로 인해 지난분기 반등한 치킨전문점의 2분기 경기지수는 64.05로 지난분기 대비 0.25p 하락해 약 보합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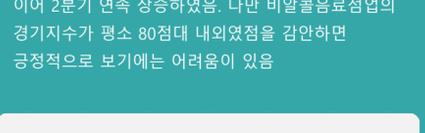
####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소폭 상승하였으나...

2018년 3분기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던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의 경기지수는 2분기 소폭 상승한 64.20으로 나타났으나 상승 폭이 적어 경기회복 신호로 보기에는 어려움



#### 비알콜음료점 2분기 연속 지수 상승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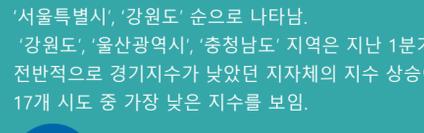
비알콜음료점의 2분기 경기지수는 75.35로 지난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상승하였음. 다만 비알콜음료점업의 경기지수가 평소 80점대 내외였음을 감안하면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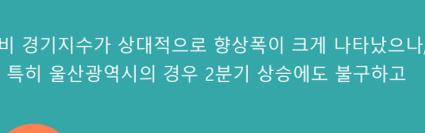
### 03 지역별 외식산업경기지수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세종특별자치시'의 2019년 1분기 경기지수가 73.0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원도' 순으로 나타남.  
'강원도',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지역은 지난 1분기 대비 경기지수가 상대적으로 향상폭이 크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경기지수가 낮았던 지자체의 지수 상승이며, 특히 울산광역시의 경우 2분기 상승에도 불구하고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지수를 보임.

#### 외식산업경기지수 상위 지역(상위 3개)



#### 외식산업경기지수 향상 지역(상위 3개)



### 04 운영형태별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

#### 업체의 운영형태에 따라 프랜차이즈(직영)

업체의 경기지수만 지난분기 대비 7.16p 상승한 91.01로 나타났으며, 프랜차이즈(가맹점)과 비프랜차이즈(단독) 업체의 경기지수는 하락하였음

외식업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프랜차이즈(단독)업체의 경기지수가 프랜차이즈업체 대비 낮은 부분이 전반적인 외식산업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외식업체의 비프랜차이즈 비율은 약 74%로 나타남

#### 2019년 1분기 vs 2019년 2분기



#### 조사결과 자세히 보기



### “2019년 2분기 외식업계 동향과 양우 전망”

#### “소상공인 음식점 자영업자의 양극화 현황과 대책”

#### 2019년 2분기 외식업계 동향과 향후 전망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이정희 교수

2019년 2분기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는 전분기 대비 0.89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외식업 경기 또한 회복세를 보이기 어려운 것이다. 지난해 국내 경제성장률은 2.7%이였으나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최근 2.4%~2.5%까지 하향 조정하였으며,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미국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와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하나인 S&P도 하향 전망 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인구의 빠른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는 외식업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사회·경제적인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산업의 경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외식업종 중에서 전분기 대비 경기지수가 상승한 업종은 출장 음식 서비스업과 외국식 음식점, 비알콜 음료점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한식 음식점, 기관구내 식당업, 기타 음식점, 주점업은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분기 대비 경기지수가 상승한 업종 중에서 가장 크게 변동이 있는 업종으로는 출장 음식 서비스업이 60.49에서 63.65로 3.1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절 요인에 의해 1분기에 비해 2분기에 야외 행사 등 이벤트가 많아지는 효과로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커피 전문점과 기타 비알콜 음료점업을 포함하는 비알콜 음료점업의 상승 또한 기후와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특히 비알콜 음료점업은 대학가 상권에 많이 밀집해 있어서 방학 보다는 학기 중인 2분기 경기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외국식 음식점도 미미하지만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서양식 음식점업과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이 상승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남아 및 중동 등 에스닉푸드(Ethnic Food)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식 음식점업은 76.16에서 73.25로 하락하여 같은 외국식 음식점업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분기에 비해 경기전망지수가 하락한 업종 중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업종이 기관구내식당인데, 전분기 77.62에서 72.33으로 5.29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구내식당업은 작년말 7월부터 시작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영향이 점차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먼저 도입된 근로시간 단축 근무에 따라 대규모 기업과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경기전망지수가 하락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그 영향은 근로시간 단축 도입이 확산되면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크게 하락한 업종은 주점업이며, 주점업 중에서 가볍게 한잔 소비 트렌드에 따른 생맥주 전문점업은 60.86에서 62.69로 1.83p 증가하였지만, 무도유휴 주점업은 75.68에서 50.00으로 25.6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식 음식점업은 경기전망지수는 지난분기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식 음식점업의 세부 업종인 한식 면 요리전문점업은 69.03에서 72.35로 오호려 3.3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음식점업은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이 약간의 상승을 보인 것 외에는 나머지 모든 업종에서 하락을 보였다. 특히 제과점업과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에서 3~5p 하락이 나타났다.

한편, 사업장 규모가 중대형 음식점업은 경기전망지수가 더 크게 하락하였고, 소형에서는 하락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침체와 근무환경의 변화에 따른 회식 수 감소, 나홀로 소비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중대형 음식점업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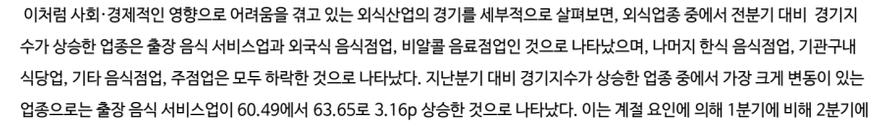
이번 2019년 2분기 외식업 경기전망지수를 1분기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결과를 보였으나, 인구구조 및 근로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라 경기전망지수가 오히려 증가한 업종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외식업은 경기라는 불확실한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겠지만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비행태의 변화에 따라 외식업의 미래는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따른 업계의 대응력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 소상공인 음식점 자영업자의 양극화 현황과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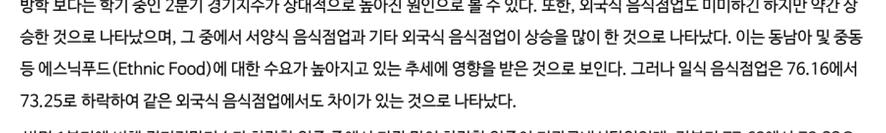
최근 국내 소상공인 음식점 자영업자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경향이 있어 이번 칼럼에는 양극화 심화 수준 확인을 위한 상관 분석을 해 보았다. 양극화 확인을 위해 선택한 상권은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먹자골목이며, 대상 업종은 피자, 치킨, 삼겹살로 선택했다. 이유는 외식업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점유수가 많고 창업자들의 관심도가 높은 업종이기 때문이다.

먼저 피자 전문점의 양극화 분석을 위해 2018년 10월 대비 2019년 3월의 월매출액 성장률을 확인해본 결과 매출액 상위 20% 업체는 약 4.3% 상승한 반면 하위 20%에 속하는 업체의 월매출액은 41.8%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치킨 전문점의 상위 20% 업체는 4.0% 상승, 하위 20% 업체는 29.3% 하락하였고 삼겹살 전문점의 경우 상위 20%업체의 매출액이 1.8% 감소하였으나 하위 20% 업체는 60.6% 감소해 오히려 매출액 상·하위 업체의 성장률은 더욱 크게 나타났다.

#### <매출 상위 20% 업체의 월매출 성장률>



#### <업체 규모별(매출액)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



해당 기간의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를 매출액 규모별로 분석해본 결과 중·소형 업체의 외식산업경기지수 대비 대형 업체의 경기지수가 가 큰 폭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대형 업체의 지수 하락 추이로 인하여 대형업체와의 편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업체 규모별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는 전체 업종의 경기지수임으로 결과 해석시 유의

이상 소상공인 음식점 자영업자 중 피자, 치킨, 삼겹살 전문점의 매출액 기준 상위 20% 업체와 하위 20% 업체 간의 양극화 현상을 살펴본다. 갈수록 소상공인 음식점들의 경쟁력 차이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양극화의 원인은 무엇일까? 첫 번째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사이의 실력 차이를 들고 있다. 경쟁력을 가진 사업자들이 더 많은 학습을 하고 더 많은 투자를 하는 반면 경쟁력이 약한 사업자는 사업에 매진해야 하기 때문에 학습과 투자에 인색한 것이 현실이다.

두 번째 원인은 고정비의 증가이다. 임차료를 비롯해서 인건비까지 대부분의 고정비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양극화를 더욱 가속시키고 있다.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던 하위 매출액 영역에 있던 사업자들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여 경쟁력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음식점 자영업자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 음식점 예비창업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일이다. 과거와 달리 현대의 소비자들은 음식점을 단순히 음식만 먹는 장소가 아니라 가격과 직장의 중간지대에 해당하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제3의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음식보다 중요한 분위기와 체험적 요소를 제공할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고, 경영자의 관리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교육하고 진입장벽을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 해결책은 손익분기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현 가능한 매출액과 이익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손익중심의 재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국내에서 제공되는 소상공인 재무정보는 평균매출액에 국한되고 있다. 창업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상권과 업종에 따른 손익분기점 정보와 매출수준에 따른 정확한 비용정보도 더 절실하다. 기업의 경우는 제한적으로나마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기업들의 재무구조를 확인하고 참고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의 경우는 정확한 상권별 업종, 업태별 재무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전무하여 비정상적인 정보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음식점을 하면 최소한 매출액 대비 30% 이상의 순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식의 옛날 정보가 최신 정보처럼 구전되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외식산업 경우 업체 스스로 정보를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조사결과 자세히 보기